

파주북소리 2014 성료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꿈꾸다!

‘파주북소리 2014’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파주북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파주시 후원으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주말외에도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포함돼 있어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500여 명의 국내외 문인들과 저자,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북콘서트와 전시회, 국제출판포럼, 도서장터 및 이벤트 행사가 어우러져 출판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독서문화 진흥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7인7색의 고서 ‘출판인장서가 특별전’
특별전 ‘7인 7색의 고서들’은 책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 온 출판계의 대표 장서가 7명을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

과 취향이 드러나는 고서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 장서가는 김병준 지경사 대표,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김연호 한길사 대표(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변기태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 윤행두 범우사 회장, 이기웅 열화당 대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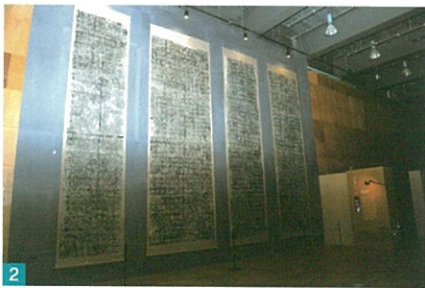
김병준 대표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어린이 잡지 10종, 해방 전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작가 작품집 10종, 약동기와 영팔이, 흑진주 등 우리나라 초기 대표 만화가 10명의 만화책을 출품했다. 김종규 관장은 재조 대방광불화엄경,

소학언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남명천 화상송증도가,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 상권, 묘법연화경, 용비어천가, 서유견문 등 우리나라 고서를, 김연호 대표는 도례의 삽화가 들어간 산울림 초판과 라퐁텐 우화집, 길버트 삽화가 있는 세익스피어 전집, 터너의 풍경화 등 유럽 고서를 출품했다. 변기태 부회장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어려움을 추구하는 정신은 서구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서를 전시했다. 여승구 대표는 고려시대 삼국사기, 삼국유사부터 조선시대 월인석보 어제천



파주북소리 2014 포스터

자문, 근대문학의 효시인 혈의 누, 은세계를 거쳐 진달래꽃, 사슴에 이르는 구성으로 전시했다. 채색대동여지도와 세상에서 가장 큰 책, 작은 책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책도 전시했다. 윤희두 회장은 올해 1600년을 맞는 '광개토대왕 비문 탁본'을 출품했다. 비문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업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위치해 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료로 미공개작이



1. 파주북소리 2014를 방문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2. 7인7색의 고서들 특별전

다. 이기웅 대표는 영국의 청소년 독본, 라이프치히 인젤 출판사의 인젤 뷔허라이 시리즈 등 보편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책이되, 편집자의 시각에서 포착한 특별한 책을 선보였다.

파주북어워드서 거자오광·아마모토 토루·왕즈홍 수상

파주북어워드 2014 시상식이 지난 10월 6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파주북어워드는 아시아 출판의 발전에 기여한 출판인, 저자, 출판미술인을 기리기 위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출판인들이 함께 제정한 상이다. 저작상은 '다른 나라를 그리다:이조조선한문연행문헌을 읽고'의 저자 거자오광 중국 칭화대 인문학원 교수, 기획상은 '동아시아 해역에 노를 젓다'를 기획 발간한 아마모토 토루 일본 도쿄대출판부 기획자, 출판미술상은 소스 도서시리즈를 디자인한 왕즈홍 대만 북디자이너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김남주 시선집'의 고 김남주 시인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스토리텔링아시아,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영국문화원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한·프 그림책 작가 특별대담, 노마 히데키 특별강연 등 굵직한 국제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책에 관한 모든 것'

전시, 강연, 피칭, 북콘서트 개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책에 관한 모든 것'에서는 문쵸, 조안나, 김옥, 신은경, 소랭이 등 일러스트 작가 16명이 여행지의 추억을 담은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여행의 추억'을 비롯해 아시아의 역사를 담은 동서양의 스토리전, 작은 출판사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강연과 상담, 팟캐스트 책임는 라디오 북콘서트 등 '책'을 주제로 전시, 강연, 피칭, 북콘서트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매일 오후 2시 김동수 가옥 별채에서는 '2시의 인문학'이 열렸다. '2시의 인문학'은 유시민 작가, 오영욱 건축가, 최민우 기자, 이진욱 미술평론가, 하림 아티스트, 최영미 시인, 강병인 캘리그라퍼 등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진행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김언호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행사에는 500여 명의 국내외 문인들과 저자,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다양한 북콘서트와 전시회, 국제출판포럼, 도서장터 및 이벤트 행사가 진행됐다"라며 "파주북소리는 출판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만들어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책축제"라고 말했다.



3. 파주북어워드2014 수상작 전시 4. 책에 관한 모든것중 일러스트레이션전 5. 매일 오후 2시에 열린 '2시의 인문학'